

권씨테마관광 4



‘경기’ 그 北道



동두천/포천/양주/ 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가평

7. 경기도 남양주시는 별내동 덕송초교 앞 공원, 권절(權節)선생 정려문



조선시대 충숙공 권 절 선생의 정려문(旌門)이 복원되었다.

권 절 선생은 단종을 폐위시킨 세조에 항거해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으며 수차례 관직 제의도 의면했다. 이후 지속적인 화유와 설득을 피하기 위해 광인 행세를 한 충신이다.

이 같은 충심을 기리기 위해 숙종 29년(1703년) 왕명으로 현재 별내동에 정려문을 세웠다.

8. 남양주시 별내동 산 212-1, 권절 선생 등 충숙공(忠肅公)조역(兆域)



권절 선생 등 묘역

9.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6 김상용(金尙容) 선생과 부인 권씨묘



金尙容(1561년, 명종 16~ 1637년, 인조 15)은 안동 김씨로 1630년(인조 8)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고 1632년 우의정에 발탁되었으나 늙었다는 이유를 들어 바로 사퇴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했다가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다.

“해는 강가에 저물어 가는데, 힘의 힘은 어찌 할 수 없도다.”(日春江頭, 臣力無何). 그의 마지막 유필이다. 그의 시신은 없다.

이때 손자인 수전(壽全)은 나이가 13살에 불과하였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죽겠다고 간청하여 같이 죽었으며, 별장인 권순장(權順長, 1607~1637)과 생원 김익겸(金益兼, 1614~1636) 그리고 노비인 승선(承善) 등도 김상용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조선시대 무덤 상식
무덤 주위: 묘계(墓界): 무덤의 구역(塋域)이며, 1푼은 100보, 2푼은 90보, 생원 진사는 40보. 사성(沙城): 무덤 뒤 병풍 처럼 좌우로 나지막한 흙의 성투, 土城

배계절(拜階節): 무덤 앞 평평한 階節 앞에 절을 하기 위한 평지.

순전(脣前): 배계절 앞 경사진 언덕.
호석(護石):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돌레에 둘러싼 돌.
곡장(曲牆): 무덤 뒤 나지막한 토담

10. 하남시 춘궁동 의원군 이혁과 부인 권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



하남시 춘궁동 의원군(義原君) 이혁의 부인 권씨 유물(溫鞋, 달신)

11. 가평군 상면 태봉1리산11, 권씨부인과 월사



이정구(月沙李廷龜 1564~1635) 선생의 묘 본관이 연안이고 임진왜란 때 명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했고, 호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하고, 신흥, 장유, 이식과 함께 조선 4대 문장가로 ‘월사집’, ‘대학강의’ 등이 있다.

도덕적 몸의 탄생과 장례문화

맹자(등문공 상)에는 자식이 부모를 매장하는 광경이 등장한다.

맹자의 이야기는 이렇다. “던 옛날에 일찍이 그 아버지(親)를 장례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죽자 들어가다가 골짜기에 버렸다. 다른 날 그 곳을 지나다 보니 여우와 새 꿩이 뜯어먹고 파리와 모기가 모여서 빨아먹고 있었다. 이마에 진땀이 흥건히 젖어서 흘려보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땀이 흥건히 젖은 것은 남들이 보기 때문에 젖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열골과 눈에 이른 것이다. 돌아와서 삼태기 와 들것에 흙을 담아 뒤집어 쏘아서 시신을 덮으니 시신을 덮는 것이 진실로 옳다면 효자와 인인(仁人)이 그 아버지를 덮는 데는 또한 반드시 도리가 있을 것이다.”

인류의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원시의 자연상태에서는 부모를 장례지내는 풍습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부모가 죽으면 시신을 도랑에 버렸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동물들이 시신을 뜯어먹고 파리가 왕왕거리며 빨아먹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런데 차마 눈뜨고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인류의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원시의 자연상태에서는 부모를 장례지내는 풍습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 부모가 죽으면 시신을 도랑에 버렸다. 그런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동물들이 시신을 뜯어먹고 파리가 왕왕거리며 빨아먹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런데 차마 눈뜨고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손에 진땀이 나고 이마와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흐를 뿐이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다. 이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이다. 그냥 괴롭기만 하다.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 같기만 하다.

이게 뭘까? 나만 그럴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흘리는 이 식은땀 때문에 부모의 시신을 덮어 장례를 치르는 도덕적 몸과 문화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직접 쓴 목민심서에는 이와 유사한 제주목사 기건의 이야기가 전한다. “판중추부사 기건(~1460)이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일이다. 옛 풍속에 그 아버지를 장사지내지 않고 죽으면 곧 구렁에 버렸다. 기건이 부임 전에 먼저 주의 아전에게 명령하여 관곽을 갖추고 염하고 장사하는 것을 가르치니 이 고을에서 아버지를 장사지낸 것이 기건 때부터 시작되어 교화가 훌륭하게 시작되었다. 하루는 기건이 꿈을 꾸었는데 3백여 인이 나타나 뜰에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골이 땅 밖에 드러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은혜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목사께

서는 응당 금년에 어진 손자를 낳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과연 징험이 있었다.(기건의 세 아들이 자식 없었는데 이 해에 장령 축(軸)이 아들을 찬(贊)을 낳아 벼슬이 응고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제주 어느 고을에는 조선 초기까지 장례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뒤늦게 장례문화가 시작되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기건은 세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

연려실기술에서도 기건을 소개하면서 위와 똑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기건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구덩이에 버려진 해골을 땅에 묻어 주고 장례를 치르게 하니 죽은 영혼들도 감동하여 결초보은 하듯 손자 없는 기건에게 손자를 안겨 주었다는 이야기다.

장례가 단순히 죽은 자에 대한 의식(儀式)으로서의 장례 이전에 산 자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식은땀 나게 깨닫게 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에서부터 연유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편집국장 권형완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매헌공 권우 묘역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는 매헌공 권우(權遇, 추밀공과 16세, 1363~1419)와 아들 권조(權措)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중종에서 전하는 일설에는 권우의 초기 장지가 세조의 광릉 경내여서 이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고 하나 고증할 수는 없다.

권우의 묘역은 후손들이 황해도 평산, 전북 정읍, 충북 괴산 등지로 낙향하고 여러 전란을 겪으며 묘소를 오래도록 찾지 못했으나 고종 13년 1876년에 후손 권택유(權澤儒)가 지석(誌石)을 찾아

단장하고 위토를 마련하였다.

묘역은 양주내 풍양의 봉곡(蜂谷)이다. 봉(蜂)자가 들어간 지명은 자손이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음택(陰宅) 또는 양택(陽宅)의 명당이다.

재실 봉현재(蜂峴齋) 앞에는 2000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수백 년 실전되었던 묘소를 1876년에 되찾을 때 이곳에 살던 주민 박용갑씨와 주모(酒母)이던 그의 처 경주최씨에

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으려 후손들이 세운 불망비(不忘碑)이다.

권우는 검교 의정부 좌정승 권희의 아들로 단산한지 10년이 지난 모친 한양한씨가 나이 48세에 밝은 별이 품에 드는 태몽으로 출산하였다.

어려서는 넷째 형인 양촌 권근에게서 학문을 배우다가 성장해서는 포은 정몽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권우는 관직에 있으면서 양녕대군과 세종 두 세자의 빈사(賓



매헌공 권우, 판윤공 권조 묘역

節)가 되었고 수백 명의 인재를 발탁하여 배출하는 당대의 석학이었다.

권우의 장자로 검교한성판윤을 지낸 권조의 묘역은 아버지 묘역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왕십리~상계동 경전철 2019년 착공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동북부 지역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4호선) 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이다.

총연장 13.4km로 정거장 15곳, 차량기지 1곳 등이 건설된다. 동북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을 현재 약 46분에서 24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 2024년 완공될 것 예정이다.



동북선 경전철 개명도

권현인비 추모 및 참배단 모집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1408년 명나라에 공녀로 끌려가 영락제 제1비 역할을 수행하다 젊은 나이에 서거하신 권현인비(북야공파 16세손 가선대부 휘 집종의 딸)의 넋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족친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교문화권 중심지역인 공자의 곡부 등 유적지를 아래와 같이 탐방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6일~9월 9일(3박 4일)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1차 참배단)
- ◆금액 : 800,000원(중국 산둥공항, 비자, 추모행사 등)
- ◆코스 : 인천공항 → 산둥성 제남 → 조장시(1박) → 조장시 정부, 권현비 능 참배, 곡부 공묘(2박) → 제남(3박) → 제남공항 → 인천공항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02-2695-2483~4
사무총장 권건중(010-5481-2297)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